슬로우 트래블러를 위한 걷기 좋은 꽃길 .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난 알프스 꽃길과 정겹게 조성된 호반 꽃길

스위스 사람들도 좋아하는 동백꽃부터 알프스 가장 깊숙한 곳에 피어난 에델바이스까지
나르시스와 크로커스같은 이국적인 꽃들도 초원에 한 가득
빙하특급타고 알프스 속살에 수줍게 피어난 봄꽃 만나볼 수도
언덕 위에 조성된 장미 공원에서 베른 구시가지가 한 눈에
융프라우와 체르마트에서 만나는 알프스 들꽃의 향연
호반따라 정성스레 조성해 놓은 꽃길 산책도 낭만적

여행업에서 지배적인 경향인 "더 빠른, 더 높은, 더 나은"에 반하는 새로운 트렌드로 "슬로우 트래블"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관광에서는 이미 캠핑, 걷기, 자전거 등 '아웃도어 레크레이션' 여행과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 떠나거나 여유로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슬로우 트래블'이 각광을 받은지 수년째다. 2015 년 말, 광고 기획사인 이노션이 발표한 '2015 년 직장인의 나홀로 소비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서 '로컬 슬로우 트래블(Local Slow Travel)'을 트렌드로 소개한 바 있다. 슬로우 트래블은 정통성, 지속가능성, 슬로우 푸드에 더 관심을 돌리는 여행 패턴이다. 슬로우 트래블러가 진정 워하는 것은 규모가 작더라도 실제로 완벽한 것을 체험해 보는 것과 사람과 자연을 직접 만나는 것, 로컬 풍습과 캐릭터를 체험해 보는 것이다. 진정한 슬로우 트래블러라면 단순히 보는 것 보다는 무언가를 직접 배워보기 원한다. 씨름 축제에서 프로 선수들과 모래밭에서 실제로 씨름을 배워보고, 허브 전문가와 함께 하이킹을 하며 야생 허브를 채취해 보는 등의 여행 프로그램이 인기다.

스위스가 가진 천혜의 자연을 가장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걷기다. 느리게 느리게 한발짝 한발짝 거닐다 보면 알프스를 오감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봄이 되면 호반과 공원에 오색빛깔 꽃들이 조성되고, 과수원에는 벚꽃과 사과꽃 등 소박하지만 정겨운 꽃들이 피어난다. 호숫가 마을보다 한참이나 늦게 봄이 찾아오는 알프스 산 속 마을에서도 민들레를 비롯한 알프스 야생화와 들꽃이 앞다투어 피어난다. 고도가 높아지면 크로커스나 아네모네 등의 정겨운 꽃들이 가득해진다. 꽃과 함께 느릿느릿 흘러가는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꽃길을 소개한다. 꽃길을 거닐다 보면 스위스를 대표하는 꽃인 에델바이스, 겐티안, 동백꽃, 튤립, 벚꽃, 아이리스, 나르시스, 서양 민들레, 철쭉, 제라늄, 장미, 금매화, 봄 크로커스 등을 만날 수 있다.

1. 융프라우 지역(Jungfrau Region)

해발고도 약 800m 의 들판에서 설산이 시작되는 4000m 의 높이까지 600 종류 이상의 꽃들이 피어나는 스위스 알프스 중에서도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여러 가지 색의 꽃들로 넘쳐나는 융프라우 지역은 스위스에서도 잘 알려진 꽃길 하이킹 코스이다.

여행자들을 감동시키는 웅장한 풍경은 물론, 험한 암벽, 아름다운 물이 흐르는 샘과 폭포, 빙하와 명봉, 삼림지와 알프스 목초지 등에서 수많은 종류의 꽃을 볼 수 있어 더욱 아름답다. 융프라우 지역은 알프스를 대표하는 꽃과 희소성이 있는 꽃들이 동시에 피어나 옛부터 많은 식물학자들이 주목해온 지역이기도 하다. 그 중 특히 아름다운 꽃길 구간은 다음과 같다.

1. 클라이네 샤이덱(Kleine Scheidegg)-아이거글레쳐(Eigergletscher) 구간: 6 월 중순부터 8 월 상순까지 여러 가지 색의 고산식물 야생화가 피어난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2. 라우터브루넨(Lauterbrunnen)-클라이네 샤이덱(Kleine Scheidegg) 구간: 6 월중순부터 7 월 하순까지 꽃이 지천에 피어난다.
3. 그린델발트(Grindelwald)- 클라이네 샤이덱(Kleine Scheidegg) 구간: 4 월 하순부터 6 월 상순까지 사과꽃부터 야생화까지 다양한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알피글렌(Alpiglen)부터 클라이네 샤이덱(Kleine Scheidegg) 주변에서는 7 월 상순부터 8 월 상순까지 붉은 알프스 꽃들이 피어난다.
4. 쉬니게플라테(Schynige Platte) 철도가 지나는 구간: 5 월 중순부터 7 월 하순까지 고산 식물이 만발한다. '쉬니게플라테 고산식물원'도 있어 더욱 알찬 꽃구경을 즐길 수 있다.
5. 그린델발트(Grindelwald)에서 케이블카로 이어지는 피르스트(First) 구간: 5 월 중순부터 6 월 상순까지 노란색 꽃 융단이 펼쳐진다. 6 월 초에는 피르스트 산 정상부터 아름다운 산상호수가 있는 바흐알프제(Bachalpsee)까지의 하이킹 코스를 추천한다. 수많은 야생화를 구경할 수 있다.
6. 뮈렌(Mürren)에 있는 알멘드후벨(Allmendhubel) 꽃길(Flower Trail): 쉴트호른(Schilthorn)으로 오르는 케이블카가 있는 뮈렌(Mürren)에서 케이블카로 오를 수 있는 알멘드후벨에는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 이 근처에서 꽃길이 시작된다. 약 30 분 정도가 소요되는 길로, 웅장한 알프스 봉우리들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6 월부터 9 월까지 150 종류가 넘는 알프스 야생화가 피어나 그 절정에 달한다. 알펜로즈(Alpine Roses)와 에델바이스(Edelweiss)를 볼 수 있는 시기도 바로 이 때다.

2. 체르마트(Zermatt)

체르마트에는 블룸베그(Blumweg)라는 이름의 꽃길이 있다. 제주올레 6 코스와 '우정의 길'로 맺어진 '체르마트 5 개 호수길' 시작되는 블라우헤르드(Blauherd)에서 시작하여 투프테른(Tuftern)을 거쳐 수넥가(Sunnega)로 돌아오는 길로, 다채로운 꽃으로 가득하다. 다양한 알프스 들꽃과 그들의 특징을 보다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 더욱 알차다. 총 길이가 약 4.3km 에 달하며 소요시간은 약 1 시간 30 분 정도가 소요된다. 난이도도 중간 정도로 적당하다.

3. 루체른(Luzern)

루체른 주변에는 산이 세개나 있어, 여름이 되면 알프스 꽃구경을 떠나는 소풍을 즐기기 좋다. 티틀리스(Titlis) 산으로 향하는 케이블카가 있는 엥겔베르그(Engelberg)에서는 트뤱제(Trübsee) 호수까지, 혹은 호수 주변을 하이킹하며 다채로운 야생화를 즐길 수 있다. 리기(Rigi) 산은 무엇보다도 야생화로 유명하다. 리기 정상에서 리기 칼트바드(Rigi Kaltbad)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나, 리기 칼트바드에서 벡기스(Weggis)까지 이어지는 길에서 과남풀을 비롯하여 금매화 등 다양한 야생화를 만날 수 있다. 필라투스(Pilatus)는 고지대 돌산이기 때문에, 정상에 있는 동굴 산책로의 바위에서 솟아난 아담한 야생화를 보기에 좋다. 크리엔저에그(Krienseregg)에서 프래크뮌테크(Fräkmüntegg)까지 이어지는 깊은 숲속 하이킹 중에 다양한 꽃을 만날 수 있다. 루체른 근교의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인 엔틀레부흐(Entlebuch)에서도 감탄스런 꽃밭을 만나볼 수 있다.

4. 취리히(Zurich)

취리히의 호숫가 산책로에 있는 정원은 다채로운 꽃밭으로 가꾸어져 있다. 느리게 걷기가 취리히의 새로운 패션으로 자리잡은 1800 년대에 만들어진 호반 산책로로, 오랜 시간 동안 취리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공원이다. 특히 호반 산책로 중앙에 위치한 뷔르클리플라츠(Bürkliplatz) 광장의 전망 테라스에서 꽃길 산책을 시작하기 좋다.
취리히 근교의 질발트(Sihlwald) 자연공원에서도 보호받고 있는 희귀한 꽃들을 찾아볼 수 있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5. 베른(Bern)

베른의 로젠가르텐(Rosengarten) 공원은 빼놓아서는 안될 명소다. 언덕 위에 자리해 있어 베른과 아레(Aare) 강의 파노라마를 고스란히 보여 주는데다, 장미로 조성된 공원에는 220 종의 장미와 200 종의 아이리스, 28 종의 철쭉이 피어난다. 1765 년부터 1877 년까지 마을 묘지로 사용되었던 곳이었으며, 1913 년 아름다운 꽃과 연못이 있는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로젠가르텐을 오르는 길에는 일본에서 선물받은 벚꽃나무길이 있어 아름다운 봄풍경을 선사하기도 한다.

6. 그라우뷘덴(Graubünden) 주

유명한 리조트 마을, 생모리츠(St. Moritz)를 중심으로 그라우뷘덴 주는 가장 스위스다운 풍경을 품고 있다. 우뚝 솟은 알프스 봉우리와 빙하, 맑은 산상 호수 주변으로 피어나는 꽃들은 감탄을 자아낸다. 스위스의 고산 식물을 보고, 희소성있는 식물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다. 특히 높은 고도에 위치해 있어 6 월 상순 정도에 조금 늦은 해빙을 맞이하는 알프스 산 골짜기에서는 해빙과 동시에 단번에 꽃들이 한창 피어난다. 특히 그라우뷘덴은 빙하특급(Glacier Express)와 베르니나 특급(Bernina Express)를 운행하는 래티쉬반(Rhätische bahn) 철도가 있는 곳으로, 파노라마 기차를 타고 꽃이 한창이 들판과 골짜기를 둘러 볼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7. 티치노(Ticino) 주

티치노를 대표하는 동백꽃은 티치노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사랑을 받고 있어, 매년 3 월말에는 동백꽃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로까르노 근교에 있는 감바로뇨 식물원(Parco Botanico del Gabarogno)에서는 약 950 종의 동백꽃을 구경할 수 있다. 루가노(Lugano)의 호반에는 정성껏 가꾸어진 꽃길이 있어 산책을 즐기기 좋다. 특히 루가노의 치아니 공원(Parco Ciani)에서는 여름이 되면 오색창연한 양귀비 꽃을 볼 수 있다. 특히 루가노 근교에서 케이블카로 올라갈 수 있는 산, 산 살바토레(San Salvatore)는 화려한 빛깔의 꽃을 구경하며 하이킹을 즐길 수 있어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8. 레만(Léman)호 지역

레만호의 몽트뢰(Montreux)는 호반의 꽃길로 유명하다. 양귀비를 비롯하여 장미와 화려한 꽃으로 장식한 꽃길을 감상하며 즐거운 여름 산책을 즐기기 좋다. 특히 몽트뢰 근교는 새봄에 피어나는 나르시스로 온 들판이 하얗게 물든다. 모르쥬(Morges)에서는 매년 봄마다 튤립 축제를 즐길 수 있고, 뷰이유렁(Vuillerens)에 있는, '자르댕 디리스(Jardin d'Iris)'에서는 다양한 품종의 아이리스를 구경할 수 있다. 브베이(Vevey) 호반에 있는 찰리 채플린 동상은 장미로 둘러 쌓여 있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